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순절 피정 (4/6, 4/7)

- 일시: 4/6(토) 오후 3 시-5 시 게인즈빌 St. Patrick 성당,
4/7(일) 오후 1 시 잭슨빌 본당
- 강사: 김데레시아 수녀님
- 제목: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베드로의 회개의 삶을 따라 사랑과 소명의 삶 살기"
- 참회예절: "하느님께 돌아가기"

[잭슨빌]

- 사순절 기간동안 수요일, 금요일 7 시 30 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목요일(4/4) 아침 11 시에 평일미사가 있습니다.
- 4/5(금) 첫금요일에 미사와 성체강복 시간이 있습니다.
- 함형석 이시돌(4/4), 김정숙 켄마(4/11)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부활초와 부활꽃 봉헌 하실분은 전례부장 최영선 마리아 자매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유럽 성지순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9 월 25 일까지 (9 박 10 일) 일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신청문의 904-573-1833 / stfccm@gmail.com

[게인즈빌]

- 다음주(4/6) 미사전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사순절 피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음주(4/6)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78	\$800	-	-	\$978
잭슨빌	\$229	\$400	-	-	\$629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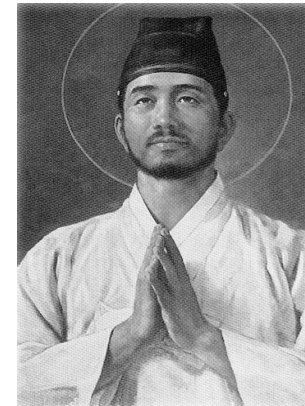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 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대던 바리새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들려준 비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유 속 첫째 아들은 바리새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상징하고, 아버지 가산을 탕진하고 후회하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어 그들과 음식을 드시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이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비유 속 큰아들의 대사는 그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복음서는 큰아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열린 결론입니다. 바로, 독자인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8. 찬미하여라 >





사순 제 4 주일

[제 1 독서] 여호수아기 5.9 ㄱㄴ. 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화답송] 시편 34(33) 2-3 4-5 6-7 (㉠9 ㄱ)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 코린토 2 서 5.17-21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15.1-3.11 ㄴ-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3/30)	이호석 레오폴드	Timothy Vail	이민지 엠마	-
	잭슨빌 (3/31)	백경윤 아네스	서정원 헬레나	손활란 안나	함동진 안드레아 함두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4/6)	최건화 안젤라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4/7)	서정원 헬레나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230	596	638	245
잭슨빌	124	219	155	280